



한국타이어 티스테이션에서 직원이 타이어를 점검하고 있다.

한국타이어가 제안하는 '여름철 안전운전 타이어 관리법'

일부 지역 낮 최고 기온이 30°C에 육박하는 등 때 이른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면서 오너 드라이버들도 여름철에 대비한 자동차 안전 점검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장마철에는 급작스럽게 쏟아지는 폭우와 무더위로 달궈진 지열 등으로 인해 노면 상태 변화를 빨리 예측할 수 없어 자동차 관리에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젖은 노면 운행 시 타이어와 지면 사이 배수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수막현상'이 쉽게 나타날 수 있어 미끄러짐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에 안전한 운행 환경을 위해 필수적으로 타이어 마모 정도, 이상 공기압, 찢어짐, 갈라짐 현상 등 타이어 점검을 마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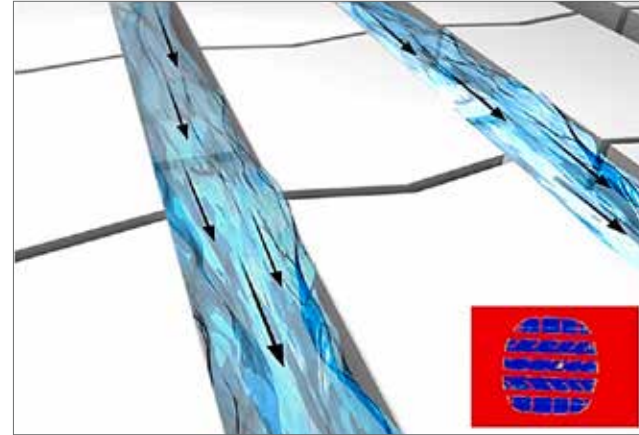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주)는 여름철 안전하고 쾌적한 드라이빙을 위해 필요한 '타이어 안전 관리법'을 제안한다.

타이어 마모, 안전 운전 마지노선 '3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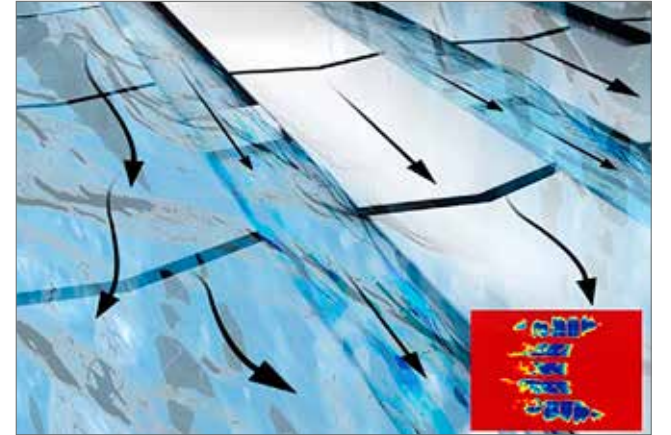
많은 운전자가 장마철 빗길에서 타이어 마모도에 따른 위험성을 감지하고는 있지만, 실제 위험 상황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동일한 타이어 마모 상태로 제동력 테스트를 진행하는 경우 젖은 노면에서 미끄러지는 거리는 일반 도로보다 15배 이상 길어진다.

빗길 미끄러짐 현상은 타이어 배수 능력과 관련이 깊다. 타이어는 트레드(노면과 닿는 타이어 표면)라는 고무층 사이 홈을 통해 도로 위 고인 물의 배수를 진행하는데 마모가 심하면 홈 깊이를 알게 만들어 타이어 배수 능력을 감소시키고 타이어와 도로 표면 사이에 수막현상을 발생시킨다.

한국타이어 실험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젖은 노면에서 시속 100km 이상 달리다가 급제동 시 홈 깊이가 7mm인 새 타이어를 장착했을



홈 깊이가 1.6mm 이상인 타이어 배수 양호



홈 깊이가 1.6mm 이하인 타이어는 수막현상 발생

때와 비교하면 홈 깊이가 1.6mm로 심하게 마모된 타이어는 약 2배 가까이 제동력 차이가 났다.

또 시속 80km 속도의 코너링 실험에서는 마모가 거의 없는 타이어는 2~3m가량 미끄러지는데 반해,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도로 밖으로 이탈하는 등 위험성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타이어 홈 깊이에 따른 타이어 교체 주기를 살펴보면 대부분 운전자가 마모 한계선인 1.6mm에 도달했을 때 타이어 교체를 고려하지만, 한국타이어는 안전 운전을 위해 홈 깊이가 3mm 정도인 상태에서 여유를 두고 타이어 교체하기를 제안한다.

여름철 '적정 공기압' 상시 유지

타이어 마모도 점검과 함께 여름철 반드시 주의할 사항은 바로 '타이어 공기압'이다. 여름철 한낮의 높은 기온과 아스팔트 마찰열로 인해 타이어 내부가 팽창해 평소보다 공기압을 5~10% 낮춰야 한다고 알려졌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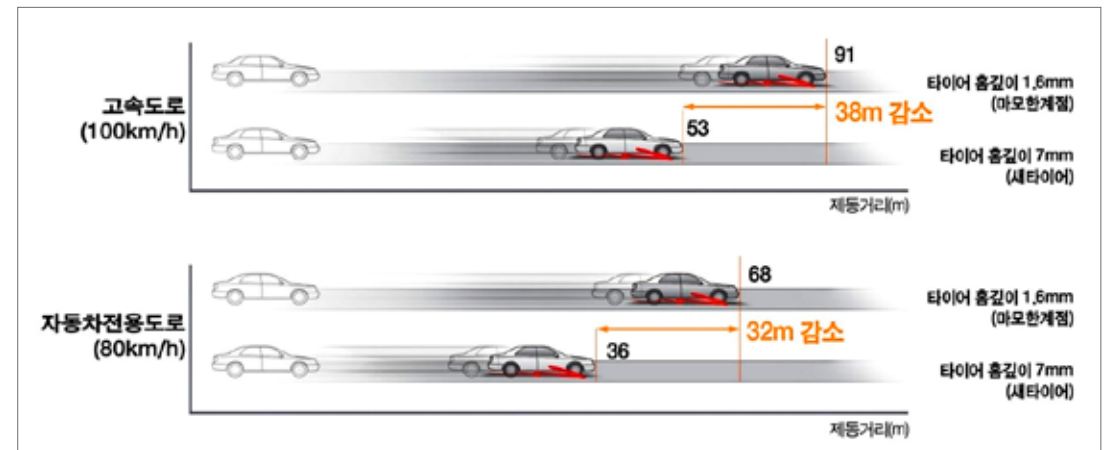
기온이 높아지면서 타이어 내부 공기가 팽창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정 공기압'은 이를 모두 견딜 수 있도록 마련된 기준이다. 여름철에는 오히려 타이어 부피 증가보다 공기압 부족 시 나타나는 내부 온도 변화에 더 신경 써야 한다.

공기압이 낮은 타이어는 회전저항이 커지고, 접지면이 넓어져 열이 과다하게 발생한다. 그뿐 아니라 고속 주행 시 타이어 표면이 물결을 치는 듯한 현상인 '스탠딩 웨이브'(Standing Wave)가 발생하는 등 파열 위험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또 타이어는 자연적으로 공기가 조금씩 빠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기압을 낮게 유지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차체 무게를 견디지 못해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

반대로 공기압이 과할 경우에는 완충 능력이 떨어져 승차감이 나빠지고 차체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타이어 모든 부위가 팽팽하게 부풀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으로부터 타이어 손상이 쉽게 발생하며 중앙 부분에서는 조기 마모 현상

신용 타이어와 마모 타이어 배수 상태 비교





한국타이어 티스테이션

도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적정 상태의 공기압을 상시 유지해 타이어 트레드 부위 전체가 지면에 고르게 접촉되도록 해야 한다.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마모되도록 함으로써 타이어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연비도 절감할 수 있어 운전자들이 손쉽고 효과적으로 타이어를 관리할 수 있다.

타이어 중심 자동차 토털 서비스 전문점 '티스테이션'

타이어 중심 자동차 토털 서비스 전문점 '티스테이션'(TStation)은 전문 인력과 첨단 장비로 표준화된 차량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프라인 매장과 쉽고 편리한 타이어 쇼핑이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티스테이션닷컴'을 통해 차별화된 온·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꼭 필요한 혜택과 체계적 차량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올마이티 멤버십과 픽업서비스 등 다양한 고객 편의 서비스도 준비돼 있다.

지난 1월 픽업서비스를 리뉴얼 론칭했다. 기존 타이어나 경정비 구매 시 이용할 수 있던 픽업서비스를 차량 정비 등을 위한 방문 예약 시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타이어 정보 큐레이션 서비스 알쏭타잡(알아두면 쓸데 있는 타이어 잡학 지식)을 선보여 고객에게 유용한 정보와 서비스로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편리한 내 차 관리와 타이어, 경정비 쇼핑을 위한 티

스테이션 모바일 앱을 새롭게 론칭했다. 앱에서는 차량번호 검색을 통해 내 차에 꼭 맞는 타이어·경정비 상품 선택, 5대 무상 점검과 엔진오일 교체 시기 도래 시 알림 서비스 등 기존 티스테이션닷컴에서 사용하던 모든 기능과 메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한 '2022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K-BPI)' 조사에서 티스테이션은 인지도와 충성도를 측정하는 이미지, 이용가능성, 선호도 등 세부 평가 항목 전반에서 우위를 나타내며 타이어 전문점 부문 14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

-타이어 안전 관리 6계명-

- ① 매월 1회 전반적으로 타이어 점검을 받는 것이 좋다.
- ② 마모한계 1.6mm 이하인 타이어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3mm 정도 상태에서 여유를 두고 타이어 교체를 고려하는 걸 제안한다.
- ③ 타이어는 기준에 맞는 적정 공기압이 상시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 ④ 장거리 고속주행의 경우에는 계속 주행으로 인한 타이어 내부의 축적된 열을 식혀주고자 2시간마다 휴식을 취하는 게 좋다.
- ⑤ 상처 난 타이어는 운행 중 파열될 수 있으므로 가까운 판매점에서 점검하며, 상처가 도달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새 타이어로 교체해야 한다.
- ⑥ 스페어타이어는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기압, 상처 여부, 남은 홈 깊이 등을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